



통도사 옥련암을 찾은 어린이들이 티셔츠를 선물받고 몸에 맞춰보고 있다.

통도사 옥련암 법선 스님

암자 방문 아이·어른들에 티셔츠 보시

7월11일, 양산 통도사 옥련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옥련암을 찾은 부모들은 주지 법선 스님이 건네는 선물을 받아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량에 아이들이 보인다 싶으면 달려가 법선 스님이 내미는 선물은 <부처님은 내 친구>라는 문구가 새겨진 귀여운 티셔츠. 스님은 올 여름 티셔츠 1천 5백장을 제작,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다. 스님은 암자를 찾는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나눠주는 것은 물론 군법당, 교도소 등에서 필요로 할 경우 티셔츠를 보내 줄 예정이다.

특히 스님은 남자 성인을 위한 티셔츠에 <끼리 끼리 우습구나 세상이>라는 문구를 직접 만들어 새겨서 세상에 대한 풍자로 삶의 여유를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려온 스님에게 티셔츠를 받아든 아이들과 부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어느새 표정이 환해진다. 아이들은 스님에게 받아든 티셔츠를 몸에 갖다 맞추어보며 가슴을 속 내밀어 자랑을 잊지 않는다. <부처님

‘부처님은 내친구’ 문구 새겨 선물 군법당 교도소 등에도 보낼 계획 방사·강당 갖춘 수련시설 개방

은 내 친구>라는 문구와 함께 코끼리를 탄 부처님 그림이 눈길을 끈다.

스님의 이 같은 나눔행은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산사 음악회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15년 전 이미 공육진 여사 초청 문화 행사를 열어

불자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나누어주었는가 하면, 99년에는 옥련암 10년 불사 회향과 때를 맞춰 장기 기증 운동 캠페인을 벌여 생명 나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력을 세운 스님은 현대식 방사와 강당을 갖춘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수련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7월 10일과 11일에는 장애인을 깨리는 수련기관 때문에 공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청각 장애아들에게 선물 수련시설을 내주고 청각장애아들에게 티셔츠 80여 벌을 보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거듭 감사함을 표하자 스님은 장난스레 되받았다. “화장실을 지어놓았으면 누가 와서 똥을 누어야 하잖아요? 수련시설을 지어놓았으니 누구든 수련을 하러 오면 대환영입니다.” (055)382-7090



인터뷰 법선 스님

“오늘 대중공양을 맡은 보살님들이 김밥을 싸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밥과 함께 간식으로 빵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그 빵을 보니까 그만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한번 돌아봐 지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법선 스님(사진)

“대중과 나누면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은 “김밥만 쥐도 무리는 다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수련하다 배고플까봐, 빵을 따로 준비해온 그 마음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내가 가진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이런 마음들을 보면 좀 더 진일보된 생각으로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 더 마음을 기울여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10년 동안 계속된 불사 때문에 절 살림이 넉

넉 않음에도 티셔츠를 나누어주고 문화행사를 여는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누구에게든 활짝 열린 문화공간이 사찰이요, 또 사찰이 가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대중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대중전을 비롯 사찰의 모든 전각이 사부대중들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산=천미희 기자

천태종 몽골에 생필품 보내



천태종은 7월12일 구인사에서 몽골생필품 보내기 원만 성취 법회를 개최했다.

의류·운동화 등 컨테이너 2대 물량

천태종 불자들의 정성이 몽골에 전해졌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월 1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몽골국 생필

품 보내기 원만성취 법회’를 열고 주한 몽골대사관을 통해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종 불자들의 정성이 몽골불교를 싹틔우는 거름이 되어 불교와 천태종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된 물품은 의류 3만1747점과 운동화 169켤레 등 총 558박스 분량으로 2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몽골에 전달된다. 이 물품은 7월 26일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도화주께요

충북 진천 정중식 불자 담관암 수술 후 치료비 막막

한 불자가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년 전부터 황달을 앓아오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최근에는 병원을 찾은 정중식(77·진천군 진천읍) 씨는 정밀검사 결과 간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통로인 담관에서 암이 발견돼 7월 7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와 정기적으로 들어갈 항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40만원으로 해결해오던 월세마

저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통보까지 받게 됐다. 정 씨는 현재 부인 이길선(70) 씨의 간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역시 허리를 다쳐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인 이 씨는 병간호 때문에 자주 집을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편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 (043)533-1672 : 강삼만씨택, 계좌 농협 321-12-168802(예금주 정중식) 박봉영기자



■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 결연신청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거사합창단 단원들이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 결연을 신청했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의 추천을 받고 있다. (02)722-4162.

■ 나눔의 스티커 신청

서울 송파구 거여2동 손미진 보살-50장

■ 나눔의 손잡기 청금

울산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9만9780원

서울시 전동초집 솔밭, 여영주, 김금순, 이순덕, 박화숙 보살, 김학표 거사 총 29만6660원

대구시 봉덕동 김태오거사 6만2580원

총 누적금액 17,665,350원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훈보가 전개중인 ‘우리아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사찰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차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차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들에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드립니다.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